

혁신산단 잇단 기업 유치...분양률 70% 눈앞

11개 기업과 합동 분양 계약...405억 투자·266명 고용 창출 총 127개 기업과 협약 체결...에너지밸리 전용산단 입지 굳혀

“빛가람에너지밸리”의 중심 산업단지인 나주혁신산단단지 분양률 70% 달성을 눈앞에 두는 등 에너지밸리 전용 산단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서울과 수도권, 광주·전남지역 등에 소재한 11개 기업과 혁신산단 합동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분양계약 규모는 총면적 6만9353㎡에 투자유치 금액은 405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26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나주시는 이날 (주)우만하이시스템 등 11개 기업과 분양계약 체결로 에너지밸리 메카로 발돋움 중인 혁신산단 분양률을 66%까지 끌어올렸다. 분양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3필지 중 2필지 가량이 주인을 찾은 등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분양계약 체결 기업 중 8000㎡ 면적을 분양받은 인텍전기전자(주)는 한국전력과 민간에 송·배전용 선로 보호기와 개폐장치, 전기철도 직류 고속차단기, 원자력 발전용 차단기 등을 생산·납품하는 중견 기업으로 연매출 규모는 1014억원을 자랑한다. 지난 2016년 5월 준공된 혁신산단은 그

동안 12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03개 기업에 분양을 완료해 투자 실현율 81%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분양이 완료된 103개 기업 중 41개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준공하고 제품을 생산 중이며, 8개 기업은 공장을 신축 중에 있다.

혁신산단의 분양 활성화는 나주시가 그동안 분양 활성화를 위해 강인규 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분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품’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입지보조금 등 각종 재정적 지원과 산단 내 버스운행,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식당, 편의점, 은행 등 지원시설 입주를 지원한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한전과 함께 유치 전담반을 가동, 기업유치에 총력을 펴고 있다. 나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기업 투자 유치에 대비해 산단 확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나후면 지역의 산업기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혁신산단은 민선 6기 들어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나주시청사 이화실에서 혁신산단 합동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고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혁신산단 분양 계약을 통해 투자유치 4653억원 달성, 신규일자리 2592개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년 연속 전남도 기업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남지역 내 최고의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산단이 에너지밸리 핵심산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하

다”며 “입주기업의 조기안착과 경영안정을 비롯해 근로자들의 주거·정주·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말 완공한 혁신산단은 2980억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면적은 178만㎡에 달한다. 서해안, 호남고속도로 등과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혁신도시와는 직선거리로 8km 남짓에 불과하고 KTX 나주역과는 10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까지는 1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나주시=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역사·문화·관광자원 홍보

나주시가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주)코엑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 수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다.

“내 나라, 인생여행”이라는 주제로 박람회장은 국·내외 유관기관, 지자체, 여행사 등 300여 단체가 참가해 총 6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제 4회 마한문화축제를 비롯한 지역 대표 관광명소 및 농·특산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금성관과 빛가람전망대, 황포돛배 등 관광 명소와 나주시티투어 1박2일 코스 상품개발을 위해 수도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라도 정명 전 년을 맞은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200만 시대를 넘어 50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지난해 열린 ‘2017 내 나라 여행박람회’ 나주시 부스.

나주시 도농복합형 푸드플랜 사업 선도지자체 선정

나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 관련 국정과제인 ‘지역 푸드플랜 사업’ 도농복합형 선도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29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중 춘천시, 완주군, 상주시와 함께 도

농복합형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촌형과 도시형, 도농복합형, 광역형으로 구분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나주시는 향후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비롯해 푸드플랜 아카데미, 선진지 연구, 컨퍼런스 교육 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나주형 푸드플랜’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연내 지역별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를 통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단계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과제 수립, 실행계획 도출 등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나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과 ‘특특’

올들어만 매출 6억원

나주시가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판매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 등이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라는 평가다.

지난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 초 설 명절을 대비해 26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했다. 또 상품권 액면가의 5%를 할인해 판매하는 등의 행사도 추진했다.

이처럼 나주시가 활발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올해 나주사랑상품권 누적매출 6억원을 달성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성과는 명절 연휴 전후 상품권 액면가 5% 할인판매 등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비롯해 시와 관련 MOU를 체결하고 상품권 이용 협력체계를 구축한 41곳의 유관기관·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장보기

날 행사 개최,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나주시의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된 성과라고 평했다.

실제로 나주시의 5% 할인판매 행사 기간 동안 상품권을 구입한 한국전력과 한전KPS는 설 명절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나주시 소재 5개 복지시설 지원에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

나주시와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MOU를 체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나주경찰서, 나주세무서, 국립나주박물관, 통합방위위원회, 광주은행 영산포지점 등 역시 해당 상품권을 구매해 ‘장보는 날’ 행사를 추진하는 등 상품권 소비와 홍보 활동에 앞장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기관·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고, 올해 판매 목표액인 25억원 달성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도 상품권 이용을 통해 침체돼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손영철기자@ycson>



나주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기업 애로 청취

나주시가 지난 27일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수·오랑농공단지를 찾아 ‘2018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골자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할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연간 월 1회 이상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일자리정책실 기업육성팀 및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관련부서와 합

동출장팀을 구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개선 요청 및 발굴 과제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소관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동수·오랑농공단지 기업체 대표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 법령개선 우수사례·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회는 순서로 진행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제 현장 속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손영철기자@ycson>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